

현역 병사들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불안, 우울과 군생활적응의 관계

Relationship of Active Duty Soldiers' Military Life Adaptation, Self-esteem, Anxie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고기숙*, 정미경**

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과*,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Ki-Sook Ko(ksko@bu.ac.kr)*, Mee-Kyung Jeong(mkjeong@kangwon.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현역 병사들의 군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불안, 우울이 군생활적응과 어떤 직·간접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은 현역병사 127명이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불안의 정도가 낮아지고, 우울의 정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군생활적응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불안이 클수록 군생활적응 정도가 낮아지고, 대인관계불안이 클수록 우울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군생활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 변수가 대인관계불안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된 변수들의 직·간접 관계를 중심으로 군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논의와 제언을 하였다.

■ **중심어** : | 군생활적응 | 자아존중감 | 대인관계불안 | 우울 | 군사회복지실천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a primary data to help adaptation of active duty soldiers' military life by figuring how self-esteem, anxie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are related to adaptation directly or indirectly. The research has done by 127 of the soldiers on servic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hen their self-esteem gets raised, the anxie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the rate of depression go down. This higher self-esteem effects on getting higher adaptation of military life. However, if the anxie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grows, this causes much more serious depression and makes hard to get adaptation of military life. Consequently this research identifies that anxie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a parameter mediates between self-esteem and adaptation of military life. In order to help soldiers adapt to their military life properly, the discussion and proposal have done with direct or indirect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 **keyword** : | Adaption of Military Life | Self-esteem | Anxie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Depression | Practice of Military Social Work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군대 내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일반 사회에서도 병사들의 군대 적응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군인은 육군 541,000명, 해군 68,000명, 공군 65,000명으로 약 674,000여명이며, 전체 군인 가운데 장교 10%, 하사관 17%, 병사 69%, 군무원 4%로 구성되어 있다[6].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병사들은 주로 19-25세 사이의 남성이며,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이 많은데 비해 인지적 미성숙과 이에 따른 심리적 문제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비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하였고, 군인 사회와 민간사회 간의 전혀 다른 사회적·환경적 체계로 인해 병사들의 군생활 적응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인간의 생애발달단계 가운데서 병사들이 속하는 청소년 후기는 성인으로 전환하는 과도기로 자아의식의 발달과 부모로부터의 독립, 통제된 환경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시기의 병사들은 이성문제, 외로움, 직장문제, 친구관계 등으로부터 영향을 민감하게 받으므로 심리적 갈등이 쉽사리 유발되기도 한다[73]. 이처럼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의 병사들이 입대와 동시에 일반사회에서는 거의 경험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 높은 통제, 24시간 공동생활, 엄격한 위계질서와 규율,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상업무, 훈련시의 육체적 고통과 위험이 내재된 급격한 환경 변화와 역할 변화 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군생활 적응을 방해하는 부정적 요인들이 잠재될 가능성이 높다. 절대복종, 집단성, 동질성을 강요하는 군 문화와 가치관이 병사들의 문화와 가치관과 충돌됨으로써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3년간 군대 사고통계에서 병사들은 과거에 비해 적응상의 문제로 인한 자살, 탈영과 같은 사고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6]고 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 병사 940명 가운데 부적응 병사는 103명(10.96%)으로 10명 중 1명 이상의 비율로 부적응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부적응집단 병사의 81.6%, 적응집단 병사의 55.7%가 주변에 군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병사들이 있다[7]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병사들의 군생활 부적응이 병사 개인의 사적인 삶

을 다루는 영역을 넘어 군 조직 전체의 활력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병사들의 군생활적응이란 군 조직에 입대 한 후 근무지에서의 생리적·심리적·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의미[60]한다. 하지만 일반 사회와 단절된 기간이 짧은 병사들에게는 군생활적응 과정에서 입대 전의 가치관이나 인격, 주변 상황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의무적으로 군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군생활적응에 대한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군 당국에서도 병사들의 적응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적응 병사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의사소통경로의 확보를 통해 부대 적응을 돕고, 지휘관들의 지휘 사각지대를 축소시켜 부대관리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상담관제 도입, 비전캠프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10].

이러한 군 당국의 관심으로 최근 3년간의 군대 사고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53], 병사들의 군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한계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병사들의 군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로는 병사들의 정서적 안정성, 우울, 공격성, 적대감, 충동성, 분노[3], 대인관계, 자신감[22], 우울, 대인관계 예민성, 적대감[28], 진로결정 수준, 자기효능감[33]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군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군대 내 병사들의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증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군에 입대한 병사들이 그 시기에 달성해야 할 중요한 발달적 과업과 군대라는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집단생활이면서도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군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사들의 심리사회적 중심요인을 찾고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병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시기와 상황에서 성취하거나 극복해야 하는 주요 과업으로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 인식과 일상적인 대화, 한 개인의 사회적 행동의 역할을 결정하는 중심적 특성이고, 대인관계는 집단생활에서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82], 우울은 은폐된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

동으로 발현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실제 현역 병사들의 군생활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군 사회복지 실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불안, 우울이 군생활적응과 어떤 직·간접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들 간의 상호관계 분석을 토대로 군생활적응 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군생활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이다.

II.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2.1 병사의 자아존중감과 군생활적응과의 관계

병사들은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특성들을 일부 공유하고 있고, 정체성이 완성되지 않은 나이에 비자발적으로 군대에 있으며, 사회 환경적으로 매우 다른 환경에 처해있어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병사의 불안수준이 자아존중감과 군 생활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군 병사들의 불안과 그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군 생활적응도가 낮아지고 불안수준은 높아진다[14]고 하였다. 신병교육훈련생들의 군생활적응과 관련한 연구에서 훈련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군생활적응력이 높게 나타났다[44]고 주장하였다. 병사 4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군생활적응도가 높은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군생활적응도가 낮은 경우 직무스트레스와 역할스트레스가 높아진다[63]고 하였다. 육·해·공군 병사 1,0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조직 환경과 집단따돌림의 관계에 부분적인 조절효과를 보였다[62]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병사는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유연하였고, 자아존중감을 갖지 못하거나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되면 자살행동까지 이를 수 있다[53] 하였다. 자아존중감과 군생활적응 간에 정적상관이 있고, 자아존

중감이 적응과 부적응의 병사를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16]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경증과 부적응의 기저에 자아존중감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병사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심적 자원에 의한 일종의 완충효과가 나타나지만 자아존중감을 갖지 못하거나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되면 극단적인 행동에까지 이를 수 있어 병사들의 자아존중감은 군생활적응 혹은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곧 군대문화개선 또는 군의 사고예방정책 등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병사들의 자아존중감은 군생활적응에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2 병사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불안과 군생활적응과의 관계

군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주는 관계 연구에서 부적응 집단 80명과 적응집단 173명을 대상으로 한 병사들의 결과, 병사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기술,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가족의 지지 등이 군 적응유연성 보호요인[17]이라고 하였다. 병사들이 경직된 내무생활에서 불안을 겪는 비율이 33%정도로 비교적 높았으며, 계급이 낮고 내향적인 병사들일 경우 불안심리가 더욱 크며, 심리적 불안증상으로는 군생활에 대한 회의와 무의미, 무력감, 우울증 등으로 나타난다[30]고 하였다. 장교, 부사관, 장병의 군생활 적응 영향요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이며, 신세대 병사의 군생활적응에 정서적 환경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3]은 고 하였다. 조사대상 병사 가운데 10명 중 1명 이상이 SCL-90-R에서 부적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증상은 편집증, 적대감, 신체화, 대인민감성 등 주로 대인관계와 관련된 것이고, 부적응 이유로 선임병과의 갈등, 비합리적인 군대문화, 고된 훈련, 부당명령 및 처벌 등 주로 군대요소 때문[79]이라고 하였다. 적응집단 병사들에 비해 부적응집단 병사들이

인권침해를 더 많이 받았다고 하였으며, 인권침해의 직간접 영향도 더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간부 4명 중 1명의 비율로 SCL-90-R에서 부적응을 보이고 있으며, 간부들은 신체화, 강박증, 편집증, 대인민감성 순으로 주로 대인관계와 관련된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이때 대인관계불안의 조건으로는 높은 생리적 각성 수준, 타인이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걱정, 그런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 위협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한 회피 행동[86] 등이 포함된다.

위의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며,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고, 주위환경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상대방의 거절에 민감하고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에 쉽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자신의 감정조절에 실패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는 곧 대인관계의 불안으로 이어져 사회적-평가적 상황에서의 걱정, 자기의식, 정서적 고통 등 그 사회적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행동하고 생리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병사들이 군 복무 상황에서 낮은 자존감은 대인관계불안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른 정신병리와의 연계 가능성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군생활의 적응기제로서 병사들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불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3 병사의 자아존중감, 우울과 군생활적응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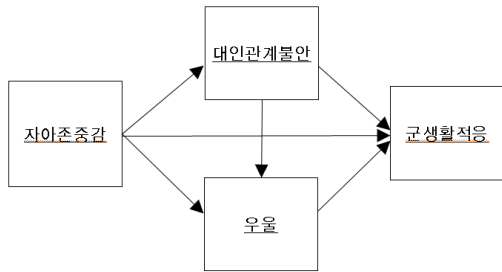
병사들에게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는 다양한 수준의 심리적 환경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에 강한 충동성과 군생활에 부적응을 일으키게 한다. 실제 육군본부[46]의 보고에 따르면, 2002년 이후에 들어서 군대에서 적응하지 못한 병사들이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해 발생하는 자살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여 군에서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군 적응장애 병사들의 가장 큰 특징이 우울, 불안, 인간관계 갈등 등 심리적인 문제가 대부분이고, 병사 940명을 대상으로 부적응 증상을 조사한 결과에서 SCL-90-R의

총점인 GSI와 군생활 어려움 문항 간의 상관은 .42로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고 하였으며, 군 복무 부적응 병사들은 평균 세 개 이상의 증상을 동시에 겪고 있다[5]고 하였다. 병사 1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자살의도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가지며,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직접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살의도에 직접 효과를 갖는 것은 우울이라고 제안[65]하였다. 군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하여 군을 제대한 복학생들에게 군인들의 삶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존심 상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으며, 그러면서도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무기력과 우울 및 불안증이 동반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병사들은 군생활적응에도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정신건강에 문제[5]가 있는 병사들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과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며[3], 충동성, 분노, 불안, 우울 등 부정적 심리에 대한 통제능력 부족으로 이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위의 연구결과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병사들은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등 병사들의 건강한 군생활 적응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병사들이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병사들은 자신의 내면적인 갈등과 그 행동 유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내면적인 갈등을 적시에 치유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면 결국 군 범죄 행동인 군무이탈, 폭행, 자살사고, 병영 생활, 군기문란 행위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병사 자신에 대한 부정적 지각, 즉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의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는 군생활적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병사들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병사들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어떤지, 그리고 군생활적응과는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모형

이론 검토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군 병사들의 군생

활적응에 관련된 변인으로는 신체건강, 가족관계, 대인관계, 이성친구유무,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불안, 우울 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통제변수: 신체건강,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성친구 유무 등

그림 1. 개념적 틀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OO도 OO사단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현역 병사들로, 이 대상들은 비확률표본추출 방법 중 의도적 표본추출(purposive sample)방법에 따라 추출되었다. 이 방법은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전형적이라고 생각되는' 표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들은 미리 OO사단을 방문하여 지휘관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적응병사와 부적응병사들이 고루 포함될 수 있는 표본추출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9년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였고, 이 기간에 연구자들이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에 자가응답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설문은 총 130부였으며 부실설문지 3부를 제외한 127개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군생활 적응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는 한국 군인에게 맞게 수정 보완[58]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총 26문항이고, 4개의 하위척도를 갖

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척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심신의 상태'는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생활상태 등을 의미한다(1-3번). '임무수행 의지'는 군인의 사명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역할, 자발성, 자신감, 임무수행, 소속집단 등을 의미한다(4-6번). '직책과 직무만족'은 직책만족, 능력발휘 인식여부, 업무의 중요성, 업무의 가치여부, 업무에 대한 관심도, 타 보직 희망정도, 직무 관여도 등을 의미한다(7-14번). '군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는 조직운영, 대우의 공정성, 조직 활동, 훈련정도 및 군기상태, 하사관 능력, 하사관과 일체감, 간부에 대한 인식, 장교의 리더십, 진급제도, 후생복지, 명령의 수용도, 군에 대한 인상 등을 의미한다(15-26번).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6$ 이다.

자아존중감 평가척도는 Likert 4점 척도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1, 2, 4, 6, 7)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3, 5, 8, 9, 10) 등이다. 점수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며, 부정문항은 역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2$ 이다.

대인관계불안 평가척도[13]는 Likert 5점 척도로 총 15문항 가운데 긍정문 4문항(3, 6, 10, 15)은 역산하여 점수를 합산하였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5점에서 7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불안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 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 평가척도[82]는 요인 1은 자기손상, 요인 2는 정서 요인, 요인 3은 신체기능요인이다. 본 설문문항은 21개 문항이며, Likert 4점 척도로 총 21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7$ 이다. 그 외, 신체건강은 '건강함(1점)', '보통임(2점)', '안 좋음(3점)'으로 구분하였고, 가족관계 '화목함(1점)', '보통임(2점)', '화목하지 않음(3점)'으로 구분하였고, 대인관계 '원만함(1점)', '보통임(2점)', '원만하지 않음(3점)'으로 구분하였고, 이성친구 유무 '이성친구 없음(0점)', '이성친구 있음(1점)'으로 구분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와 AMOS이다. 먼저, 연구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SPSS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을 구하였다. 각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이론개념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확인요인분석과 구조모형 분석은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은 Baron and Kenny(1986)의 방식에 따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V. 결과분석

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연령은 만20세와 21세가 92명(72.4%), 22세와 23세가 31명(24.4%)를 차지하였다. 군계급은 이병이 59명(46.5%), 일병이 51명(40.2%), 상병이 17명(13.4%)으로 이병과 일병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대학교 이상이 74명(58.3%), 대학교자퇴 23명(18.1%), 고졸이하 28명(22.0%)이었다. 건강상태는 건강함이 55명(43.3%), 보통임 42명(33.1%), 안좋음 30명(23.6%)이었다. 가족화목은 화목이 77명(60.6%), 보통이 36명(28.3%), 화목하지 않음이 14명(11.0%)였다. 대인관계는 원만함이 86명(67.7%), 보통이 28명(22.0%), 원만하지 않음이 13명(10%)을 차지하였다.

(2) 주요 변인의 특성

주요 변인의 자료 특성을 보면, 군생활적응의 평균은 2.6805로 '적응 안 되는 편' 과 '보통' 중간에 위치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군생활적응 수준은 전반적으로 볼 때, 보통 수준에 조금 미치지 못하였다. 우울 평균은 .6073으로 비우울(0점)과 경우울(1점)의 사이에 있었고, 대인관계불안 평균은 2.7995로 '조금불안'과 '보통' 사이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평균은 3.0622로 '보통'을 아주 약간 넘었다.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80 이상인 것이 발견되지 않았고, 분산팽창계수(VIF)는 10 이하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왜도 및 첨도 수치가 -2이상 2이하의 범위 내에 있어서 자료가 대체로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모형 분석 결과

①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이론변수로 사용된 변수는 우울과 군생활적응이다. 이 두 변인들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이론적 개념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확인요인분석결과의 판단지표는 IFI, TLI, CFI, RMSEA¹⁾ 등을 사용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IFI, TLI, CFI 등의 적합도는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본 모형이 양호한 수준임을 보여주었고, RMSEA는 0.08이하로 나타나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자료는 본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IFI	TLI	CFI	RMSEA	비고
측정모형	.989	.976	.989	.075	

②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의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 파악한 결과, IFI, TLI, CFI 등이 .9이상의 수치를 보여 우수하였고, RMSEA도 .050을 보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연구모형의 부합도

	IFI	TLI	CFI	RMSEA
연구모형	.993	.985	.992	.050

아래 [표 4]는 연구모형의 모수추정결과(경로계수, 표

1) IFI, TLI, CFI 모두 0.9이상이면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가 0.05보다 작을 때 양호하다고 할 수 있고, 0.08이하일 때는 어느 정도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준화된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SMC 등)이다. [그림 2]는 최종모형 모수추정결과들을 토대로 한 최종모형 경로도해이다.

표 4. 8변인간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다중상관자승치(SMC)

경로	비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 오차	t값	SMC
자아존중감 → 대인관계불안	-.362	-.327	.093	-3.884***	.107
자아존중감 → 우울	-.574	-.581	.068	-8.465***	.539
대인관계불안 → 우울	.264	.297	0.60	4.420***	
자아존중감 → 군생활적응	.351	.366	.092	3.809***	.490
대인관계불안 → 군생활적응	-.312	-.360	.070	-4.468***	
우울 → 군생활적응	-.139	-.143	.102	-1.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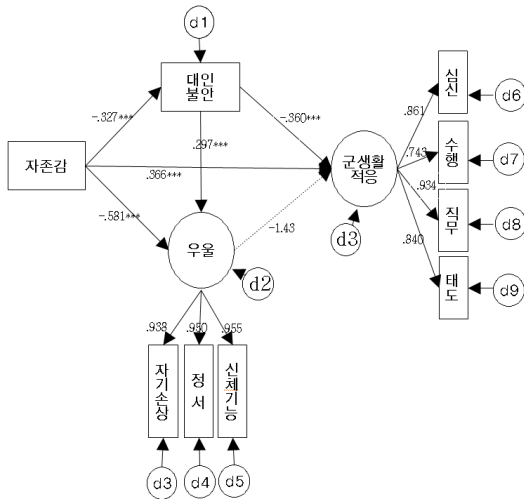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변수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불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eta=-.327$, $t=-3.884^{***}$).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불안이 높아짐을 볼 수 있겠다.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불안을 설명하는 비율은 약 11%였다.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beta=-.581$, -8.465^{***}), 대인관계불안도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beta=.297$, 4.420^{***}). 자아존중감이 높을수

록 우울이 낮고, 대인관계불안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우울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불안의 설명력은 약 54%였다.

군생활적응에 대하여 자아존중감이 직접 영향을 미쳤고($\beta=.366$, 3.809^{**}), 대인관계불안도 군생활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beta=-.360$, -4.468^{***}). 그러나 우울은 군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beta=-.143$, -1.362).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군생활적응이 높아지고, 대인관계불안이 높아질수록 군생활적응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불안이 군생활적응을 설명하는 비율은 약 50%였다.

아래 표는 직접 및 간접효과를 분석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불안에 직접효과를 갖고($-.327$)를 갖고, 우울에 직접($-.581$) 및 간접효과($-.097$)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군생활적응에 직접($.366$) 및 간접효과($.214$)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불안은 우울에 직접효과를 가지며($.297$), 적응에 직접($-.360$) 및 간접효과($-.042$)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직접 및 간접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자아존중감 → 대인관계불안	-.362	-.327	.000	.000	-.362	-.327
자아존중감 → 우울	-.574	-.581	-.096	-.097	-.670	-.678
자아존중감 → 군생활적응	.351	.366	.206	.214	.557	.580
대인관계불안 → 우울	.264	.297	.000	.000	.264	.297
대인관계불안 → 적응	-.312	-.360	-.037	-.042	-.349	-.402
우울 → 군생활적응	-.139	-.143	.000	.000	-.139	-.143

* p<.05

이상의 결과에서 구조모형분석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경로 중에서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불안을 지나 군생활적응에 간접효과를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대인관계불안이 자아존중감과 군생활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에 따라 매개 분석[81]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자아존중감은 군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_1 = .549, t=7.342^{***}$), 2단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_2 = -.327, t=-3.869^{***}$), 3단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불안이 군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_3 = .429, t=5.935^{***}/\beta_4 = -.366, t=-5.067^{***}$). 군생활적응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1단계에서 보다 3단계에서 더 작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beta_1 > \beta_3$). 대인관계불안이 자아존중감과 군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 논의 및 결론

병사들의 군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대 내부와 외부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군대내에서는 각종 사고와 부적응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 병사들의 군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불안, 우울이 군생활적응과 어떤 직·간접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군생활적응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군 병사들의 자아존중감과 군생활적응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결과들[14][43][63]과 일치한다. 자아존중감이 적응과 부적응 병사를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주장[16]과도 같이, 자아존중감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적응 병사들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군사회복지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병사들의 자아존중감이 군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는데, 더 나아가 자아존중감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불안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대인관계불안이 자아존중감과 군생활적응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었는데,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대인관계불안 수준이 높아지고, 따라서 군생활적응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이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불안이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여러 주장[83]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또 다른 연구들 가운데, 군 병사들의 불안에 자아존중감과 군생활만족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14], 군생활적응도와 자아존중감, 군생활적응도와 스트레스가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64], 병사들의 대인관계기술, 자아존중감 등이 군 적응유연성의 보호요인이라는 주장[16],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이 군생활적응에 중요하다는 주장[3], 그리고 병사 10명 중 1명 이상이 대인관계와 관련된 편집증, 적대감, 신체화, 대인민감성 등의 정신적 문제를 겪는다는 주장[79]들과 일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차이점은 기존 연구들에서는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불안, 군생활적응 등의 변수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자아존중감과 군생활적응과의 관계, 불안과 군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세 변수들간의 직간접 관계를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세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 특히, 대인관계불안이 자아존중감과 군생활적응 사이를 매개하고 있음을 밝힌 것은, 기존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독창적인 발견점이라고 하겠다. 아울러 이 결과는 현역 병사들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불안 그리고 군생활적응을 연계한 임상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현명선 외[77]의 주장에서와 같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며,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안정감을 갖게 되어 주위 상황에 잘 적응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불안은 우울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병사들이 경직된 내무생활에서 비교적 높은 불안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 생활에 대한 회의와 무의미, 무력감, 우울증 등을 겪는다[30]는 주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대인관계불안이 높을수록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3][65]의 결과와 비슷하게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울과 군생활적응의 관계는 별다른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군 병사의 우울과 적응의 관계에 대해서는 본 연구가 기존의 보고와 일치되지 못한 결과를 보여서 해석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 병사들의 정신건강이나 적응에 관한 연구가 극히 미비한 상황이라는 하지만, 기존 보고들 가운데 육군본부[46]에 따르면, 군대에서 적응하지 못한 병사들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군적응 장애 병사들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우울인 것[5]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울과 군생활적응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본 연구의 결과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우울과 군생활적응 변수간의 상관관계나 군생활적응을 종속변수로 하고 우울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는데, 그 결과에서는 우울과 군생활적응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r = -.5^{**}$)와 영향력($\beta = -.5$, $t = -6.431^{***}$)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즉, 두 변수간의 관계만을 놓고 볼 때는 그 관련성을 긍정할 수 있으나, 다른 변수들과의 구조적 관계 속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보다 더 깊고 정확한 해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여겨지고, 병사의 우울과 군생활적응 사이의 관계는 추후 연구에서 계속 밝혀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군생활적응의 관련성에 대한 해석은 일단 보류하기로 한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군 병사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실천적(임상적), 정책적 접근을 취할 수 있는지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실천적 접근 방안으로 군생활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임상 프로그램의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군생활적응 증진을 위해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강조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살의도[65]나 자살행동[53]에까지도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한 변

수이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이 적응과 정신건강에서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아존중감은 군생활적응 이외에도 우울, 대인관계불안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군 복무 상황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불안으로 연결되고, 이로 인해 군생활적응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불안과 군생활적응을 예견하는데 중요한 변수이고, 대인관계불안도 우울과 군생활적응을 예견하는데 중요한 변수이라는 점이다. 이에 병사들의 군생활적응 향상을 목표로 하여,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불안을 접목한 개별 및 집단 프로그램 개발하여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다음으로, 군생활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접근방안에 관하여 모색해 보기로 한다. 현재 군에서 병사들의 군생활적응을 위해서 과거에 비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병사들의 적응에 관한 군의 관심은 지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군에서는 병사들의 인권보장, 병영문화개선, 고충처리에 대하여 기본권 전문상담관 제도를 시범 운영하였던 것이다. 이후, 군은 점점 병사들의 군생활부적응 문제에 대해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었으나, 군에 상담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민간전문인력을 활용한 전문상담관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는 2008년도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주 역할은 복무 부적응 장병을 식별하여, 상담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는 병사들의 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이 최근 추진한 조치 중에서 매우 혁신적이고 의미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병영생활전반에 대한 일반적이며 전반적인 상담은 이루어지고 있을지 몰라도 병사들의 적응과 삶을 위협하는 정신건강(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대인관계불안문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접근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주로 일반 상담가나 사회복지사들로서, 정신건강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데 한계를 갖고 있

다.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 체계상 정신건강을 다루는 전문가들은 정신과 의사와 정신보건전문요원들(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이다. 이들은 그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써 주로 병원과 지역사회 내에 있는 관련 센터와 시설들에서 활동하고 있고, 군에는 극히 적은 수의 정신보건전문가들의 활동만 있을 뿐이다.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군대내 정신건강 문제를 잘 다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훈련된 정신건강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정책적으로 군에서 나타나는 적응의 문제,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및 정신건강 변수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신건강 영역의 전문가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소극적으로, 현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자격과 훈련을 좀더 강화하여 정신건강 전문지식을 갖추고 또한 이에 대한 훈련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본 연구는 군생활적응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심리와 정신건강과 관련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사회복지관점에서 볼 때, 적응의 문제는 물리적, 환경적, 생활의 변수를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기에 군의 특성상, 다소 어려움이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도 그런 어려움의 한계를 갖고 진행되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병사들의 적응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다루어가려면, 그런 변수들까지 포함하여 고려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연구과제이다. 추후 연구들에서는 병사들의 군생활적응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생태학적인 변수들을 포함하여 다루기를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1] 강은실, 조향숙, 송양숙, 강성년, “청소년의 자살 의도, 우울, 영적 안녕과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제13권, 제2호, pp.190-199, 2004.
- [2] 공중기, “사병들의 군생활 적응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3] 구승신, “신세대 병사의 군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4] 구승신, 정옥희, 장성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콘텐츠논문지, 제11권, 제9호, pp.225-237, 2011.
- [5] 국가인권위원회, 군 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6.
- [6]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06.
- [7]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07.
- [8]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08.
- [9]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09.
- [10] 김경민, 정익중, “위탁아동의 친가족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25권, pp.93-120, 2009.
- [11] 김계수,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SPSS 아카데미, 2002.
- [12] 김기현, “군복무 병사들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와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서강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13] 김남재, “대인불안에서의 귀인양식 그리고 우울과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제4권, pp.19-34, 1996.
- [14] 김성식, “군 병사들의 불안과 그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15] 김영태, 이현엽,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발전방안 탐색”, 국방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pp.177-200, 2009.
- [16] 김영호,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심리학적 변인 간의 상관관계”, 한국학교체육학회지, 제11권, 제1호, pp.11-19, 2001.
- [17] 김윤근, “병사들의 군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과 위협요인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8] 김은정, 권정혜,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제17권, 제1호, pp.139-153, 1998.
- [19] 김의열, “신세대 병사의 적응실태 및 군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20] 김정환, *교육철학*, 서울:박영사, 1992.
- [21] 김준승, “불안척도에 의한 사병들의 정신건강 평가”, *대한군인의학학술지*, 제26권, 제1호, pp.108-119, 1995.
- [22] 김현주, “사병의 군조직 적응추진 연구: 군 교육 체도를 중심으로”, *안보학술논문집*, 제6권, 제2호, pp.357-437, 1996.
- [23] 김혜정, “병사들의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입파워먼트 및 군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24] 남영자, 박태영,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제16권, 제4호, pp.47-71, 2009.
- [25] 류경희,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관련변인”,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12호, pp.147-168, 2003.
- [26] 박경애, 구본용, 김원중, 송중용, *청소년 자살행동 연구*,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3.
- [27] 박영주, “병사의 군대적응요인과 사회복지실천 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28] 박영주, 정원철, “후방복무병사의 군대부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국제학술대회(창립50주년기념)*, pp.48-487, 2007.
- [29] 박재산, 문재우, “청소년이 인지하는 가족 내 갈등과 건강보호행동으로서의 자아개념”,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23호, 제2호, pp.91-107, 2006.
- [30] 박춘근, “장병 심리상담을 위한 불교적 접근”,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31] 박호선, “군 적응장애 환자의 유발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32] 배태순, 최명민, 김영미 역, *전문사회복지실천기술*, (Lambert Macguire, 2002, *Clinical Social Work - Beyond Generalist Practice with Individuals, Groups, and Families.*) 시그마프레스, 2007.
- [33] 서혜석, “신세대 병사의 진로결정수준과 자기효능감이 군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5호, pp.109-131, 2008.
- [34] 서혜석, 이대식, “신세대 병사의 진로발달이 군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제16권, 제1호, pp.33-49, 2008.
- [35] 성미혜, “여대생의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2권, 제1호, pp.84-96, 2008.
- [36] 손지원, “군 입대후 환경과 군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37] 송찬미, “군병원 퇴원에정병사의 군 적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38] 신혜영, 최혜림,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공격성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5권, 제2호, pp.295-307, 2003.
- [39] 김정원, “부모의 음주가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40] 아영아, “따돌림 가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요인”,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41] 엄덕희, “군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42] 오송희,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43] 오수종, “신병교육훈련생의 자아실현과 군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44] 이상욱, “군 신병경험이 군생활적응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45] 육군본부, *신병교육지침서*, 대전: 육군본부, 1999.
- [46] 육군본부, *육군규정 제 383: 학교교육 규정*, 대전: 육군본부, 2002.
- [47] 육군본부, *자살사고 특정분석*, 대전: 육군본부,

- 2003.
- [48] 육군본부, '05년 사고분석, 대전: 육군본부, 2006a.
- [49] 육군본부, *부대관리 Know-How 123*, 대전: 육군본부, 2006b.
- [50] 육군본부, *06년 발생사고 분석보고*, 대전: 육군본부, 2007.
- [51] 윤영호,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국군 복무 청소년 육성정책 방향(상)”, *군사논단*, 제25권, pp.163-176, 2001.
- [52] 이경님,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인과모형”, *생활과학연구논집*, 제10권, pp.41-56, 2002.
- [53] 이경진, “청소년 자살의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54] 이관섭, “병사들의 입대 전 온라인 게임 이용방식이 현실인식, 갈등해결방식,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55] 이미숙, 최영, 유지숙, “청소년의 신체증상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39권, 제2호, pp.323-333, 2000.
- [56] 이수현, “여대생의 대인불안, 대인관계유형, 낭만적 애착유형과 관계증독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57] 이유허, 채규만, “컴퓨터 게임 중독과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및 적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5권, 제3호, pp.711-726, 2006.
- [58] 이윤희, “*군생활에의 적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3.
- [59] 이종호, “*군 조직에서 신입원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1996.
- [60] 이창현, 감오현, “*군 조직 내 소외현상의 결과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제16권, 제3호, pp.209-233, 2009.
- [61] 임수영,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완충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62] 임우진, “*보호관심병사 지도를 위한 군 상담 활성화 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63] 장경숙, “*신세대 병사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가 군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64] 전종설, “*가출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65] 정미경, 고기숙, “*군 병사들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자살의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제40권, 제4호, pp.453-483, 2009.
- [66] 정민화, “*신세대 현역 병사들의 군생활 적응력 향상 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67] 정영주, 정영숙,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우울, 인지적 왜해 및 친구 지지 간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20권, 제1호, pp.67-88, 2007.
- [68] 조선영, 이누미야 요시유키, 한성열, 목춘옥, “*한일대학생의 대인불안 규정요인의 비교: 공격자기의식, 자아존중감, 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9권, 제1호, pp.1-12, 2005.
- [69] 조순영, “*병사들의 건강증진행위, 정신건강, 군생활 적응과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제12권, 제2호, pp.164-171, 2003.
- [70] 최광표, “*지식정보사회에서의 한국군 교육훈련 혁신방향*”, *합동군사연구*, 제9권, pp.261-263, 1999.
- [71] 최명선, 구남용, “*부하가 지각하는 직속상관의 공감능력, 친밀도와 부하의 군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제4호, pp.1227-1241, 2008.
- [72] 최종길, “*군인자살의 원인과 예방대책*”,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73] 통계청, *청소년 통계*, 통계청, 2008.
- [74] 한인영, “*군 사회복지사 도입의 필요성 고찰*”, *국*

방정책연구, 2000 가을호, 국방연구원, 2000.

- [76] 해군작전 사령부, *군 상담의 이론과 실제*, 1999.
- [77] 현명선, 정향인, 강희선, “군인들의 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제18권, 제3호, pp.305-312, 2009.
- [78] 현진희, 김희국, “병사들의 군 적응을 위한 분노 조절프로그램의 효과성”,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7권, pp.5-27, 2007.
- [79] 홍두승, *병사 군복무 주기상 내면양태 변화와 심리성향 변화 추이 분석 및 관리요점*, 서울: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9.
- [80] D. A. Adams, J. C. Overholser, and A. Spirito, “Stressful life events associated with adolescent suicide attempts,” *Canadian J. of Psychiatry*, Vol.39, pp.43-48, 1994.
- [81]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 [82] A. T. Beck,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pre & Row, 1976.
- [83] N. C. Winters, K. Myers, and L, “Proud,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depression, hopelessness, social support, and major and minor life events and their relation to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J. of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28, pp.358-374, 2002.

저자 소개

고 기 숙(Ki-Sook Ko)

정회원



- 1998년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사)
- 2000년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사)
- 2003년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
- 2007년 ~ 현재 : 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군사회복지, 정신건강, 종교와 사회복지

정 미 경(Mee-Kyung Jeong)

정회원



- 1999년 :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문학박사)
- 2008년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2년 ~ 현재 :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군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평생학습